

- 본문 : 마태복음 1장 18~25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 본문 읽기**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우간다를 철권 통치한 군사 독재자 이디 아민(Idi Amin)은 자기 백성 50만 명을 처형한 자입니다. 1920~50년대 소련을 통치한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은 자기 백성 3천~6천만 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선한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통치자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당신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J.B.필립스의 저서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셔서 너무 작아지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만 당신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 안에 들어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마태복음 1장에서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23a절)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23b절)
2.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로 주시기로 하신 “임마누엘”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참조, 사9:6~7)
3. 임마누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진행되었는데(18b, 20b), 성경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 참조, 히2:14~15)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마1:23)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마28:20)로 끝난다고 해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의 특수한 간섭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이것을 완성하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셔도 이 문제만큼은 그분의 역량 밖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작게 여겼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사랑방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합시다.

**· 말씀기도제목**

1.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하시는 임마누엘 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2.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나를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2025 새생명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을 갈망할 때 내가 확신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태신자에게 임마누엘의 왕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